

국민 참여 확대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투자형·후불형 R&D도 도입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 수의 99%, 전체 고용의 83%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세계 속 강소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기술과 제조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020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지원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국민 참여 확대, 지원방식 변화 등 새로운 시도를 진행 중이다.

국민평가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국민과 더욱 가까워진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 중소기업 정책에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R&D과제 선정평가 단계에 '국민평가단'을 도입했다. 국민평가단은 기존의 기술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함께 과제 선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국민평가단은 기술 분야 전문성 보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부 R&D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기업별 과제발표 청취, 질의 등 평가과정 전반에 걸쳐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R&D 분야 6개 사업에 대해 진행 중이며, R&D 사업 전반으로 확대해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6개 사업은 ▲ AI 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 ▲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 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이다.

재밍

'재밍' 역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다. 재밍은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브레인스토밍으로 올해 8월 중소기업 기술 전략 품목을 추천하는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중소기업기술로드맵은 소수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도출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술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한 재밍 방식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수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의견을 게재할 수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625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815건의 기술 제안을 하고 7천370건의 토의를 나눌 수 있었다. 재밍에서 제안된 여러 의견은 중소기업기술로드맵 홈페이지(www.smroadmap.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조감도
3 중소기업 혁신네트워크포럼 참석자들



투자형·후불형 R&D

올해는 R&D 지원 방식에도 변화를 두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 R&D 지원은 출연방식으로 진행했다. 출연방식은 자금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력 기반 구축에는 기여했지만, 엄격한 선정 절차와 경직된 집행 구조로 인해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시장에서 필요한 R&D의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자율적으로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방식인 투자형·후불형 R&D를 도입했다. 먼저 투자형 R&D는 민간 벤처캐피탈이 선별해 미리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 선별과 보육역량, 자본력 등 시장의 장점에 투자 방식의 유연성을 결합해 R&D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65억원 규모로 첫발을 딛는다. 후불형의 경우 미리 지급한 25% 이내의 출연금과 기업 자체 재원으로 먼저 R&D를 진행하고 선공 판정을 받은 후 나머지 75% 이내의 출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4차산업혁명 분야, 소재·부



품·장비,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전략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이 대상이다. 기업이 자체 재원을 먼저 투입해 R&D를 수행하는 만큼 기본요건 검토와 서면평가만으로 선정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윈스톱 평가를 진행했다. 후불형 지원으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신 R&D 우수기업에는 기술료 면제,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사업화 자금 보증연계, 필요하면 후속 R&D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재홍 원장은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최종 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확산하고 지원방식 혁신을 통해 도전적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